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3. 2(월) 총 2매(본문 2매)	
담당 부서	코로나19 대응 긴급항공상황반	담당 자	· 국제항공과장 신윤근, 사무관 황성필, 사무관 홍남식 · ☎ (044) 201-4207, 4215, 4208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.	

한국 → 미국행 ✈ 항공편에서 출국 전 발열검사 시행

발열(37.5℃) 확인 시 탑승거부될 수 있어, 공항으로 출발 전 확인 要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**코로나19**와 관련하여,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(대한항공, 아시아나)가 시행*하고 있는 발열검사(37.5℃)를 3월 3일(화)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발열(37.5℃) 확인 시 탑승 거부, 수하물 하기, 환불조치 등 시행 중(2.28~)

○ 이와 같은 결정은,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, 3.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.

□ 현재 국내·외 항공사는 중국·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,

○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노선*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(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)에 대하여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하였으며,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.

* 한-미국 간 국제노선 운항현황('20.3월初 기준이며, 추가감편 가능)
 △인천공항발 (대한항공) LA, 샌프란시스코, 시애틀, 시카고, 뉴욕, 보스턴, 애틀랜타, 델러스, 워싱턴, 라스베가스, 호놀룰루 / (아시아나) LA, 샌프란시스코, 시애틀, 뉴욕, 호놀룰루 / (델타) 시애틀, 디트로이트, 애틀랜타, 미네애플리스 / (유나이티드) 샌프란시스코 / (아메리칸) 델러스 / (하와이안) 호놀룰루 /
 △김해공항발 (제주항공) 괌, 사이판 / (진에어) 괌 / (에어부산) 괌

-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,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,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.
- 아울러,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의 운항제한 및 아국민의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, 국토교통관이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 및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4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